



MAY 2023

뉴저지 초대교회

# 자녀를 위한 순예배

부모와 자녀세대를 연결하는 신앙적 소통 만들기

예배, 증거, 양육으로의 부르심!

마태복음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19)

## FAMILY ACTIVITY

### "BALANCING RACE"

준비물: 끈, 종이그릇, 탁구공

1. 종이그릇에 세개의 구멍을 뚫고 줄을 연결합니다. 줄 끝에 고리를 만들어 손으로 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종이그릇 세개의 구멍옆에 각각 예배, 증거, 양육이라고 적어줍니다. 총 두 세트를 준비합니다.

2. 두 팀을 만들어 경주를 할 예정입니다. 각 팀은 탁구공을 종이그릇위에 올린 후, 세명이 각각 세개의 끈을 잡고 달립니다. 움직이는 동안 탁구공이 바닥에 떨어지면 탈락입니다.

\*예배, 증거, 양육은 각각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어주시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세개가 발란스를 유지하면서 움직여야 하는것을 배워봅시다.

교회는 이 세가지의 부분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예배, 증거, 양육. 이 세가지 부분의 소명은 반드시 함께 움직여야 하며, 서로 발란스를 이루지 못하면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또한 이 세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스스로 혼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강하고 탄탄하게 성장시키기에 이 모든것은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도들은 한데 모여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의 모임은 모여있는 사람들에 관한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도들과 함께하시는 자리라는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것을 가능케하여 주십니다. 기독교 전통에 기인한 예배의 기본 요소에는 성경봉독, 찬양, 기도, 말씀선포, 헌금 봉헌, 신앙 고백, 성례집행, 헌신과 서약이 있습니다

증거의 사명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가리킵니다 (행 1:8). 이웃전도의 사명으로 시작하여, 세계선교의 사명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것에 지역구제의 사명이 함께 갑니다.

양육의 사명은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양육의 본은 바로 그 분 삶 그 자체였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친밀한 삶의 동행을 통해 배움의 장을 만들어냈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고자, 그 분을 따라가고자 노력했습니다.

예배, 증거, 양육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그리셨던 교회의 모습대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르심입니다. 교회의 성도로서 일원으로서, 우리들은 서로를 돌아보며, 이 부르심을 따라 성실히 쫓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며 격려하고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 TALK

1. 예배, 증거, 양육의 사명중 내게 좀 더 익숙하며 더 많이 따르고 있는 사명은 어떤것일까요?
2. 예배, 증거, 양육의 사명중 우리 교회가 좀 더 익숙하며 더 많이 따르고 있는 사명은 어떤것이라 생각하나요?
3.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할 수 있기를 중보해보도록 합니다.

## CONCLUSION

우리 각자는 이 교회를 만들어내고 있는 일원이며 성도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른 성격과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조금씩 다르게 사용하시며,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모습들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을 모두 한곳에 불러 교회라는 이름으로 묶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주시는 부르심은 우리 각자의 것과는 다른,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도전하고, 또한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예배의 사명에, 또다른 누군가는 증거와 선교의 사명에 열정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서로를 통해 배워야 하며, 이 모든 사명속에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닦아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서 그리셨던 교회의 모습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것입니다.



## ENDING PRAYER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의 발걸음을 점검하고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허락해주세요. 우리가 각자 혼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한마음이 되어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가운데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서로를 존중하며 이끌어주고 한마음 한비전을 품어 그 어디에도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하나님께서 그려주셨던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